



이 천 용
임업연구원 연구관

미국 최대도시 뉴욕의 녹지공간 센트럴 파크

뉴욕시의 중심인 맨하탄은 섬 양쪽으로 한강보다 폭이 더 넓은 허드슨강과 이스트강이 흐른다. 이스트강을 건너면 같은 뉴욕시로서 교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녹지보다는 건물이 훨씬 많은 지역이고, 허드슨강을 건너면 뉴저지주로서 정원도시라는 별칭처럼 대도시 주변이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평지에 숲이 많은 지역이다. 특히 뉴저지주쪽에서 맨하탄을 보면 아름다운 고층건물이 독특한 모양을 뽐내며 있어 장관이다. 우리나라 텔레비전 광고에도 자주 등장하는 조지 워싱턴 다리를 건너 강변도로를 따라 남쪽으로 5킬로미터 가면 센트럴 파크가 나온다.

센트럴 파크(중앙공원)란 지명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나 쉽게 만날 수 있을 정도로 흔하다.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구성된 도시는 시민의 건강상 녹지를 조성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특히 도시 한가운데 있는 중앙공원은 시민

들이 접근하기 쉽고 삭막한 도시 경관을 부드럽게 하여, 지치고 거친 도시민의 마음을 순화시켜주기에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도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선사해야 한다. 이것을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공원이 뉴욕의 센트럴 파크이다. 전체 면적이 약 340ha이며 남북의 길이가 4km, 동서의 길이가 800m인 센트럴 파크는 1857년 당시 쓰레기 처리장을 옴스테드와 복스라는 건축가가 디자인하여 세계 최초의 도시공원으로 바꾸었다. 16년에 걸쳐 1억여 달러가 투입되어 50만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었다. 이 공원은 60개의 입구가 있으며, 예술의 문, 소녀의 문 등의 이름이 붙여진 입구도 있다.

정월 초 사막화방지협약 정부 간 회의에 참석하기 위하여 뉴욕의 유엔본부로 출장을 갔었다. '유엔본부는 정초부터 일하나' 하는 투정을 내기도 하였으나 엄동설한을 피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겨울 평균 기온이 서울보다 3도 정도 높았기 때문이었다. 뉴욕에 도착한 날은 예상대로 영상 10도쯤 되는 봄과 같은 날씨여서 '정말 잘 왔구나'라고 기분이 좋았지만 그것도 하루뿐, 체감온도가 20도가 넘는 뉴욕의 한파는 차라리 우리나라의 겨울이 부러울 정도였다. 10여년 전 초겨울 노르웨이에 갔다가 정말 추워서 옷을 많이 입고도 덜덜 떨었던 기억 다음에 가장 추운 날씨였다.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속에 찬데'라는 시조의 일부가 저절로 생각날 만큼 강하고 찬바람이 옷속으로 들어와 뼈를 시리게 하였다. 햇빛이 차단된 빌딩사이로 부는 골바람은 오히려 평지보다 세게 불어 문자 그대로 陰風이었다. 춥고 긴 겨울을 나는 맨하탄에서 공원은 그것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민의 휴식처였다. 공원 주변에는 공원의 역사성을 빛내주려고 무수한 박물관이 산재하고 있다. 뉴욕시내 관광



◀ 눈덮인 공원의 동쪽입구

을 하려고 한겨울에 냉방차를 타고 중앙공원의 주변을 돌면서 보니 박물관 중에서도 가장 큰 메트로 박물관이 유일하게 공원속으로 들어와 있다.

지난 여름 다리 아프게 돌아다녔어도 너무 넓어 전체면적의 1/4 밖에 보지 못했던 나는 일행이 박물관을 보는 사이 그 옆의 산책로를 따라 공원으로 들어갔다. 땅값으로 따지자면 상상도 못할 비싼 곳에 맨하탄 전체면적의 1/10을 공원으로 조성한 미국 선조의 미래를 보는 해안에 부러움을 느꼈다. 또한 백년동안 면적을 축소하지 않고 잘 보존하여 온 시민들의 자연보전 의식에 찬사를 보내고 싶었다. 그 공원의 입구 양지바른 곳에는 모든 것이 햇빛을 띄고 있는 겨울에 다행히도 아직 파란 채

얼어버린 작은 나무들 잎사이에 수십마리의 새가 제각각 예쁜 소리를 내며 겨울의 삭막함을 몰아내고 있었다. 얼굴을 때리는 바람소리와 새소리의 하모니는 오히려 신선하고 마음을 열리게 하였다. 이래서 '사람들은 경제에 아무 도움이 안되는 야생조수에 관심이 많나보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며칠 전 내린 눈이 녹지 않아

빙판이 되어버린 길 위를 조심스럽게 걸으면서 상록수는 거의 눈에 띄지 않는 이유를 궁금해하고, 빨리 자라는 포플러류가 많은 이유도 한편으로 의문을 가져본다. 우리 그림 속에 자주 등장하는 裸木과 비슷하나 유난히 樹皮가 노랗게 보여 주위를 밝게하는 양버즘나무 무리가 장대한 가지들 마음껏 내뿜고 있다. 서울의 혼한 가로수와는 다르게 노란 빛을 띠는 이유가 무엇일까?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 많은 궁금증을 풀어보아야겠다. 간간히 활엽수 틈에 끼어 있는 침엽수도 추위에 제 빛을 잃었는지 잎색깔이 깊고 푸르지 않다.

숲 사이로 이러저리 나 있는 산책로는 너무 많아 숲을 망가뜨리지나 않을까 하는 염려 속에 엉성한 고무망으로 사람들의 출입을



▶ 비탈면 식생도입시험을 하고 있어 울타리를 치고 안내판 설치

막는 시험지가 눈에 보인다. 산책로변 비탈에 각종 식물을 심어놓고 토양을 피복하므로서 어떤 식물이 침식을 잘 막는가를 시험적으로 하는 곳인데 고무망에는 '무슨 식물을 심고 어떤 의도로 이 일을 한다'라는 설명문이 비닐코팅되어 달려 있었다. 거창한 표찰도 아니고 하찮은 것 같은데도 시민의 궁금증을 풀어주기에는 그만하면 족한 듯 싶었다.

공원에는 커다랗고 편평한 돌이 군데군데 있었는데 검은 돌 속에 들어 있는 운모가 햇빛에 반사되어 마치 작은 금덩어리가 있는 듯이 빛나고 있었다. 돌 한구석

위에서 나무뿌리를 내리고 자라는 나무는 전반적으로 흙살이 적어서 뿌리가 옆으로 뻗고 있어 누가 보아도 생장환경이 나쁜 곳이지만 비가 자주 내리는 덕에 건조 피해를 막고 생각한 것보다 나무 자람새가 괜찮았다. 어떤 나무는 땅 위에서 여러 갈래로 자라 마치 울릉도의 너도밤나무 숲과 같은 느낌이 들었다.

언덕을 올라서니 바람이 더욱 기승을 부려 도저히 서 있기 어렵다. 언덕 비탈진 눈밭에서 네살 전후의 두 아이 엄마가 아이들이 눈썰매(아라비안나이트의 날으는 용단 모양의 플라스틱 판)를 홀로 타게 하면서 겨울 추위를 녹이고 있었다. 공원의 숲 안에서 얇은

플라스틱 판에 자기의 몸을 싣고 내려갔다 올라오는 일을 반복하는 아이들, 그리고 母子의 웃음 속에서 잠시 나를 잊어 본다. 어머니 자궁과 같이 포근한 숲에서 활동하면 아이들 정서에 큰 영향을 미쳐 착하게 자랄 것이라고 기대하며 자리를 옮겼다. 공원을 남북으로 가로지르는 큰 아스팔트에는 차들은 간 곳 없고 온갖 형태의 사람들이 조깅을 즐긴다. 옷도 다양하고 뛰는 모습도, 나이도 없이 누구나 달린다.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차도 없고, 찾길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 건강에는 좋겠지만 한편으로는 풍요 덕분에 찼살을 빼려고 추운날 고생한다고 생각하니 측은하기도 하다.

▼큰 바위 위에서도 잘 자라고 있는 나무들





▲ 숲 속에서 눈썰매를 즐기는 가족

숲속을 들여다 보면 죽은 나무들이 쓰러진 채 엉켜 있다. 지저분한 느낌도 주지만 흰눈이 덮여서 인지, 아니면 백여년 동안 자연상태로 놔두어 원시림처럼 보여서 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대로 숲 안에 있는 느낌이었다. 그 속에 우리 예쁜 토종 다람쥐보다 3배쯤 크지만 훨씬 못생긴 회색의 미국산 다람쥐가 여기저기 다닌다. 가져온 과자를 주니까 두 손으로 입에 넣는데 입이 덩치에 비해 작은지, 욕심이 없는지 다른 먹이는 갖지 않는다. 조금 더 가면 넓은 호수가 있고 이곳으로 들어가는 물이 소계곡을 이룬다. 계곡에 물

이 짙짙 흐를 정도로 많다. 눈이 자주 오기는 한다지만 토양의 물 저장능력도 적고, 섬으로 되어 물 저장할 산도 없는데 이상하다. 아마 강 상류 일부를 돌려서 물이 흐르게 하지 않았나 싶다. 호수의 물 유입구 부분에는 얼어붙은 호수를 가리려고 갈대밭이 어른거린다. 갈대는 산에 있거나 물가에 있거나 어디든지 겨울에는 좋은 경치를 자아낸다. 호수 뒤에 서 있는 고층건물이 주변과 어울려 더욱 좋다.

뉴욕의 센트럴 파크는 오늘날 뉴욕시민 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온 관광객의 사랑을 받는 명소가 되었다. 그것은 140년 동안 뉴욕 시민의 나무를 가꾸고 숲을 만들

고, 꽃을 심는 노력과 애정이 듬뿍 담겨 있는 정성의 결과 때문일 것이다. 공원은 예산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공원을 구성하는 자연물 중 대표적인 나무들은 오랜 세월을 가꾸어야 공원의 자연스러운 가족이 되어 누구에게나 친근감을 줄 것이다. 마칩 여의도 광장의 아스팔트를 걷어내고 공원으로 만든다는 소식이다. 백년을 바라보면서 인공공원을 자연공원으로 만드는 꾸준한 정열을 기대해 본다.